

교육적폐 청산과 대학의 미래

교수 칼럼

이기라

후마니타스칼리지



검찰개혁, 국방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 수십 년 동안 켜켜이 쌓이고 지난 정부 9년 동안 강화된 적폐 청산에 대한 기대가 크다. 새로 취임한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과 장차 관급 인사를 통해 적폐청산과 개혁의지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와 누리과정 재정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기로 한 것 외에 별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으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취임 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 혹시 교육개혁, 특히 대학개혁은 우선순위에서 함참 밀린 것은 아닌지 조금씩 염려가 되기 시작한다. 대선 공약에도 고교 무상교육 및 서열화 해소, 반값등록금, 공공기숙사 확대 등 중등교육과 교육복지와 관련된 공약은 많이 보였지만, 교육적폐 청산과 대학개혁에 관한 내용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학교육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면서도 질은 별로 좋지 않은 상품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고 교육을 질을 높이는커녕 돈을 매개로 대학들을 졸 세우기에 바빴다. 교육부 관료들은 대학 관련 정책, 재정, 평가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해왔다. 특히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들을 통해서 대학들을 자신들의 권력에 예속시켰다. 학생 평가, 졸업생 취업률, 입학정원 축소, 교원연구업적 등은 거의 모든 사업에 기본적인 평가지표로 사용된다. 대학들은 재정지원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늘 이런 평가지표들을 ‘판리’해야 한다.

각각의 평가지표들이 교육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들어왔는지 짚어보자. 우선 학생 평가 항목은 대학들



지난해 10월 19일 이화여대 교수들과 재학생들이 본관 앞에서 학사행정 정상화를 요구하는 집회현장 (사진=중앙일보)

이 ‘상대평가’를 도입하고 강화하는 근거가 된다. A를 받은 학생의 비율이 높을수록 학생 평가 지표 점수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우리 대학의 경우 상위 30% 미만 성적의 학생에게는 B+ 이상의 학점 입력 불가. 전 세계 어느 교육기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야만적이기까지 한 학생 평가제도이다. 학점별로 더 촘촘하게 비율을 정해놓은 대학들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이미 초등학교부터 경쟁에 길들여진 학생들은 이 한 가지 상대적 기준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런 평가방식 하에서 연대와 협력이라는 시민적 가치를 가르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졸업생 취업률과 입학정원 축소 지표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취업률과 정원축소는 대학을 산업에 필요한 인력만을 배출해야 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특히 취업률이 핵심적인 평가지표였던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PRIME)은 취업률이 낮은 학과의 정원을 축소하거나 통폐합하고, 기상천외한 이름의 ‘융복합’ 학과들을 탄생시켰다.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융합보안공학과, 스

마트온행체공학과 등등. 교원연구업적은 소속 교수들이 한 국연구재단 등재지나 해외 SCI급 저널에 얼마나 많은 연구논문을 실었는가가 핵심이다. 저서나 역서는 거의 포함되지 않고 오로지 연구논문만 해당된다. 이 평가지표를 올리기 위해 대학들은 채용기준에서부터 승진자격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많은 논문을 요구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1년에 두 세 편의 논문을 발표해야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결과는 교육의 포기,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진정한) 연구의 포기로 나타났다. 또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은 기존 논문중심의 교원업적평가에서 산학협력 실적을 포함시켰다. 이후 교수들은 각종 연구용역 수주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 흐름에서 일부 교수들은 ‘대강 사업’과 같은 국가재난적 정책추진을 정당화시켜주었다.

지난 3월 9일 교육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기 바로 전날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서둘러 발표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일정을 밀어붙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당시 국정 역사교과서는

이슈화가 되었지만 입학정원 축소와 통폐합을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은 이미 2주기에 접어든 사업이라 그런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평가지표에 따라 대학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대학 구조개혁에도 당연히 입학정원 축소뿐만 아니라 학생 평가와 졸업생 취업률이 평가지표로 포함되어 있다.

이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대학의 문제들을 더 열거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우리의 감각이 무뎌진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교육부가 나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왜 등록금 부담은 줄지 않고 대형 강의는 늘어나는 결과? 시간강사를 비롯한 비전임 교수들의 처우는 왜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결과? 여기저기서 적폐를 이야기하고 청산을 외치는데, 대학정책과 관련된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한 마디 보태고 싶다. 교육적폐 청산을 절대 미루면 안 된다고 말이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실마리가 이화여대의 정유라 부정입학과 ‘미래라이프대학’에 있었음을 기억하자.

참여마당

남효형
(정보전자신소재공학 2013)



망설임을 넘어 자유로운 세상 위해 필요한 것

평소에 상대방과 각자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기회가 적기도 하지만 막상 자리가 마련돼도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벽을 친다. 끈질기게 서로의 의견을 말하는 토론은 내가 물렸거나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의견과 충돌하는 과정이다. 대학생에게 권유되는 다양한 경험과 소통에 부합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왜 실생활에서 유리돼 있을까? 매일 많은 사람과 말을 하지만 내 생각에 대해 말하는 건 몇 마디 되지 않는다. 일상적인 소소한 대화는 편하게 할 수 있지만 토론하듯 자신의 주장을 꺼내며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한다. 그러한 자리가 있더라도 분위기가 어색해지거나 다른 주제로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토론은 수업에서 교수가 요구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수업과정에 가깝고, 어떤 점이 좋은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다. 토론을 하고 싶어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우연히 독서소모임에 참여하게 돼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특별한 스펙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와 같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야기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과 자유롭게 말하고 듣는 과정이 좋아서 시작한 일이 어느덧 3년이 돼간다.

토론이 좋아 시작한 독서소모임

삶의 태도를 정비하는 힘

독서토론의 가장 좋은 점은 나와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정적인 비난 없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집요하게 주고받는 과정에서 내 편견을 부수고 조금씩 성장할 수 있다.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발언하는 것은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나의 생각을 직접 말하면서 문장으로 구성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상대방의 주장을 들을 때도 보다 논점을 이해하기 수월해진다. 여러 주제와 이슈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생기는 것도 큰 도움이 됐다. 죽음에 대한 태도, 사랑의 가치,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등 일상생활이나 혼자 있을 땐 깊게 생각할 수 없는 주제들에 대해 내 의견을 만들고 말하는 것은 삶에 대한 태도를 정비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작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배경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준비라는 마중물을 통해 서로의 말에 집중하고 반박하며 질문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 그 가벼운 시작으로 독서토론이 체계이라고 생각한다. 책을 읽으며 토론에 기준점이 되는 텍스트를 공유하고 주제를 정하면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책만큼 다양한 영역의 토론도 가능하다.

그동안 많은 사람과 다양한 생각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독서토론 활동을 할지말지 주저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라. 좀 더 많은 토론의 장이 생기고 서로에게 집중하는 대화가 많아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나아가 서로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데에 거부감이 없는 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2017학년도 2학기 수강희망과목담기 안내

2017학년도 2학기 개설 교과목을 대상으로 수강희망과목담기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학생들의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수강희망과목담기?!

가. 제도개요

- 차기 학기에 개설되는 강좌 중 수강을 희망하는 강좌를 소정기간 중 미리 선택해 놓아 실제 수강신청 시 수강희망과목담기에 담아놓은 강좌에 대해 신속하게 수강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함

나. 희망과목담기 유형

- 수강희망과목담기는 “희망과목담기”와 “예비과목담기”로 구분하여 실시됨

1)희망과목담기

- 본인의 수강허용학점범위 내에서 실제 수강신청 조건과 유사하게 강좌 선택 가능
- 동일 과목명의 강좌는 중복하여 선택되지 않음
- 현황은 전공별 강좌 개설 및 여석 배정을 위한 수강수요 기초자료로 활용

2)예비과목담기

- 희망과목담기 외로 10과목까지 선택 가능
- 동일 과목명 강좌의 중복 선택 가능
- 수강수요 측정과는 관계없이 단순 수강신청 편의 제공용

※ 희망과목담기 또는 예비과목담기로 담아놓은 강좌를 실제 수강신청하는 방법은 두 담기 방법이 동일하나, 수강수요 파악을 위해서 학생이 실제 수강을 희망하는 강좌는 희망과목담기에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실시기간

- 1차: 2017.06.19(월) 10:00 ~ 06.29(목) 17:00
- 2차: 2017.07.19(수) 10:00 ~ 07.21(금) 17:00

3.참여대상:서울·국제 캠퍼스 재학생 및 복학예정 휴학생

※ 휴학생 중 2017학년도 2학기 에 복학을 예정하고 있는 학생은 강좌에 대한 수요예측을 위해 반드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처 학사지원과

2017년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

서울특별시·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일반·상환학자금, 취업 후 상환학자금)을 받은 서울지역 대학생들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함을 알려드리오니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대출 생활비 대출 모두 포함

※ 서울지역 대학생

-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서울이며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서울이며 국내 대학(교)에서 졸업한 미취업 청년(졸업한 후 2년 이내)

● 사업명: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 지원대상: 한국장학재단에 대출 신청일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8분위에 해당되는 서울지역 대학생

● 지원범위: 대출 당시 소득분위 기준

구 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7분위 이하	소득 8분위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일반 상환학자금	전액 지원	차등 지원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
취업 후 상환학자금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

※ 정부지원이 있을 경우 정부지원금 공제 후 지원

※ 차등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당해 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정함.

● 지원내용: 현재 재학(휴학) 또는 졸업한 대학교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하여 지원

● 신청조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자에 한함.

● 신청기간: '17. 6. 1(목) 09:00 ~ '17. 6. 30(금) 18:00

● 접수처: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대상자확정 및 원리금 상환: '17년 10월 이후 예정임

● 이자지원방법: 대학생 개인별 대출 원리금 상환(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개인별 입금 조치 없음.

서울특별시